



순복음동경교회 침례식

목차

- P2. 샛포로신학교개교식, 기념예배
- P4. 최용우목사 초청 축복성회
- P5. 침례식 @아끼가와 기도원
- P6. 담임목사 컬럼 “기쁨의 샘”
- P6. 홋카이도 선교&침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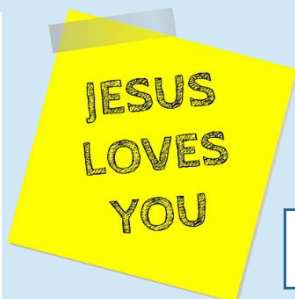
교회의 3대 비전


- 성령충만한 교회
-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교회의 3대 목표

- 가족구원과 가정예배의 실천
- 지구역장 300명
- 100개 교회

발행 || 순복음동경교회
 편집 || 문서선교회
 주소 || 신주쿠구카부키쵸2-2-19
 전화 || 03-3232-0667
 FAX || 03-3232-0729
 WEB || www.fgtc.jp/kr/



순복음동경교회
 홈페이지는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신문열람가능합니다.)

<http://www.fgtc.jp/kr/>



일본 선교의 기지가 될 삿포로신학교가 개교

2022년 4월 5일

삿포로신학교 개교식 전야의 성령대망회 2022.4.4(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 고린도전서 13:13 —

2022년 4월4일,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성전에서 성령대망회가 열렸습니다.

순복음동경교회의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이 성경구절을 인용해 ‘영원한 보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도로 구하면 주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는 비전’을 마음에 품을 수 있고, 그 비전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하며 성령대망회를 인도했습니다.

삿포로성전에 모인 120명 이상의 성도들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비전인 일본 일천만구령의 실현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삿포로신학교 개교식 및 개교기념예배 2022.4.5(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8 —

2022년 4월5일, 개교식 및 개교기념예배가 삿포로프리미어 호텔에서 열렸으며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여의도순복음인산교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영상중계로 동시 진행했습니다.

삿포로신학교가 개교되기까지 힘있게 이끌어 온 이사장 시

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삿포로신학교의 개교는 조용기 목사님의 꿈인 동시에 이영훈 목사님이 계획하는 세계선교의 중요한 전략이다. 일본 선교의 원동력으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며 개교를 선언했습니다.



삿포로신학교 개교식 및 개교기념예배 (이어서)



개교기념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삿포로신학교의 학교장인 이영훈 목사는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주의 종이 될 삿포로신학생은 일본선교에 목숨을 다해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메시지를 삿포로신학교 1기생을 향해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 일천만구령을 위해 일본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 시가끼 목사님을 필두로 전 성도가 한마음이 되면 일천만구령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라며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개교식

이영훈 목사는 바다윗, 박종필, 신승관, 야마나카 타이스케, 전부호, 최미정, 한경연 총 7명의 입학생을 호명하고 입학허가를 선언했습니다.

명예교문 최용우 목사는 축사로 “이 학교를 통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신학자,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배출돼 일본 일천만구령의 사역이 앞당겨질 것을 확신한다”며 삿포로신학교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삿포로신학교의 교수 오사카 타로우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신학생이 2년간 성별(聖別)되어 임하는 훈련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 귀중한 일이며, 일본 일천만구령을 이끄는 데 필요한 영혼육이 인격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신학생을 격려했습니다.

삿포로신학교의 개교를 위해 준비해온 3년 반, 순복음동경교회의 홋카이도선교회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이겨내 왔습니다. 삿포로신학교의 첫 시작을 끝게 된 기적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용우 목사 초청 축복성회

2022. 5. 3(화)~5(금)



순복음동경교회는 여의도순복음신안산교회의 담임목사이며 샤폘로신학교의 명예교문인 최용우 목사를 초청해 5월 3일(화)부터 5월 5일(금)까지 3일간의 축복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성회 첫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 히브리서 13:11-13—

성회 첫날은 ‘영문 밖에서의 제사(히13:11-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구약시대의 속죄제를 통해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세상적인 것은 성령의 불로 영문 밖에서 태우고 회개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성회 2일째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 여호수아 18:1-4 —

성회 2일째는 ‘자기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오라(수18:1-4)’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땅(인생)을 그려오라는 것은 각자 갖고 있는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갖고 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권세 위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며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목표와 비전을 성취할 것을 강조하고, 성취할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중략---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닳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21:29-36 —

성회 마지막 날은 ‘영원한 재난을 대비하라(눅21:29-36)’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함께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님 뿐이라며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는 탐욕을 제거하고, 성령충만 받아야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용우 목사는 3일간의 축복성회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며,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4차원의 영성을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습니다.

참가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이웃과 자신을 위해,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번 축복성회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성회로 마무리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침례식 @아끼가와 기도원

2022년 7월 18일(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중략---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3-5—

2022년 7월18일, 아끼가와 기도원에서 침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세상은 나들이가 한창인 3일연휴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침례현장을 보기위해 많은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아끼가와 기도원 부근은 몇일 전부터 호우경보가 발표되는 등 곳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침례식 당일에는 비가 그치고 오히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침례식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침례를 받는 성도는 48명으로 침례식을 위해 3주에 걸쳐 침례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순복음동경교회에서는 7월 11일~15일 5일간 침례식 특별새벽기도회를 열어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침례식을 진행하기 앞서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는 침례식예배를 인도하였고, ‘침례(롬6:3~5)’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부활의 힘을 얻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긴장과 기대 속에서 연합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소리와 함께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성도는 “할렐루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고 앞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길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 컬럼

“ 기쁨의 샘 ”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 빌립보서 3:1-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처형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절대적인 환경속에서 빌립이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쓴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인생의 에너지이며, 기쁨없는 인생에 가치는 창출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부귀영화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만, 이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며 허무한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영원하면서 확실한 기쁨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16:11)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을 분리해 놓던 울타리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제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쁨으로의 길, 기쁨의 원천인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모든 것을 맡길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배움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렘 15:16)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토대를 쌓는 사람은 초조, 두려움,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말씀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기도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때, 역경에 처했을 때 일수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회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다섯째로, 성도와와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18:19~20) 성도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올 때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상적 교제가 아니라 항상 예배중심, 기도중심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업에 참가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충만하여 기도와 성도간의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면 그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사업에 관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8:10) 이 기쁨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흘러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훗카이도 선교 & 침례식

2022년 7월 24일(주일) ~ 28일(목)

축복성회 (24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중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 요한복음 15:5-8 -

7월24일(주일)은 오후7시부터 축복성회를 가졌습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15:5~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지로서 그 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열매를 맺는 존재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매일 다듬어 주신다.”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침례식 & 찬양예배 (27일)

27일(수)에는 온천과 단풍으로 유명한 조산케이(定山溪)의 강에서 샤프로성전 성도를 대상으로 한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신학생과 선교팀의 찬양과 함께 침례식이 시작되었고, 참가자들은 침례를 받은 김유동 성도를 위해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부터는 샤프로성전에서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날 신학생의 인도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10명정도였는데, 샤프로신학교를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앞으로 일본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의 드러날 것이 기대되는 예배였습니다.

